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조 성 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 사업기획팀장)

정 지 영(여주대 교수)

1. 문제제기

21세기로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가족은 급속한 변동과 함께 최저출산 국가, 초고령사회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세대구성의 단순화, 가족 규모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의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전통적 가족공동체 해체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며, 소외가족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부부가족은 9.3%(’90) → 20.8%(’15)로 추산되었으며, 1인 가구는 9.0%(’90) → 20.7%(’15), 한부모가구는 8.7%(’90) → 11.2%(’15)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부모부양의식도 가족 책임 70.7%(’02) → 40.7%(’08), 가족과 정부의 책임 18.2%(’02) → 43.6%(’08), 부모 스스로 9.6(’02) → 7.8(’06) → 11.9 (’08) (통계청, 2008)라는 지표와 고령화 사회를 연결해 볼 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부부가족, 1인가구가 노인부부가족, 노인 단독 가구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 또한 가족 규모의 축소, 전통적 가족공동체 해체, 이혼의 증가는 조손가족의 증가 예측도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부로 살아갈 세월이 늘어나며, 그러한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노인가구, 노인가정과 관련된 변화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인들의 또 다른 노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 이는 그동안의 롤모델이 없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에 더욱 그 변화에 대한 준비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업의 방향은 건강가정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을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또한 가정의 건강성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운영된다. 특히 가정의 건강성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최소화, 문제의 예방을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은 생애주기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가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 있고, 과업수행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가족은 다음 단계로 발달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은 생애주기별로 강조하가 다르며 현재 예비부부, 청소년기 부모교육,

중년기 교육, 노년기 교육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예측 가능한 가족관계의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단계에서 해내야 할 과업들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까지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교육이 강조되어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은 새로운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즉 가족문제의 예방을 강조하고 가족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고령화사회대비 가족문제의 예방과 노인들의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지원방안을 선도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노인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예전의 노인과 현재의 노인은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조손 가구의 증가, 부모부양의식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특징에 비추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노인서비스가 보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노인문제 예방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의 노년기 생애주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노인가구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인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회변화, 사회 현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교육의 과제를 발굴하여 고령화사회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노인가족의 특성

한국은 가족해체 증가, 한부모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등으로 조부모가 단기·장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족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손가족은 고령인 주부양자의 특성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고, 양육 정보의 취약등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가구율은 11.2%, 모자가족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17%, 조손가족은 이의 3배인 44%의 빈곤율을 보여 조손가족의 가족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손가족 관련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한 지원 등이 있다. 이는 당초 「모·부자복지법」으로 조손가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7년 10월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면서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가정은 극히 일부이다.

<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376,021	1,393,515	1,420,790	1,447,168	16,916,966	17,152,277
부자가구	287,962	293,667	301,123	308,416	315,447	322,180
모자가구	1088,059	1,099,848	1,119,667	1138,752	1,156,514	1,173,043
조손가정	58,058	60,057	62,266	645,01	66,798	69,175

*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6부터는 추계치임)

또한 우리 사회에는 최근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독거노인 등 노인단독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즉 자녀동거가구는 줄고 노인단독가구(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55.9%('94) → 53.2%('98) → 43.5%('04) → 30.2%('0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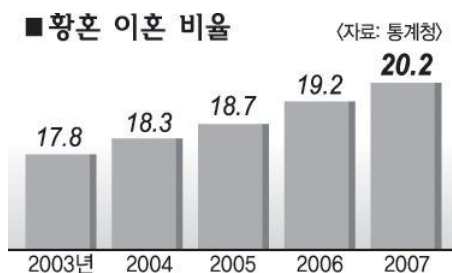
<60세 이상 노인가구 형태의 비율>

(단위 : %)

구분	1994	1998	2004	2008
노인독신가구	16.2	20.1	24.6	25.7
노인부부가구	22.8	21.6	26.6	39.4
자녀동거가구	55.9	53.2	43.5	30.2
기타 가구	5.1	5.1	5.4	4.7

* 자료 : 보건복지부 각 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또한 노인수명의 확대에 따른 노인부부관계도 중요해졌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황혼이혼의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이후 이혼하는 부부는 줄어든 반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황혼 이혼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이혼통계 결과'를 보면 2007년 한해 12만 460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이는 지난 2006년의 12만 5000쌍보다 400쌍 준 수치다. 통계청은 지난 2003년 이후 4년동안 이혼하는 부부가 계속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5~49세 사이 연령에서 부부 수가 줄었고,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안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되어서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황혼 이혼'은 계속해 늘고 있다. 통계청은 전체 이혼 중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비중이 20.2%로 지난 200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3년은 17.8%, 2004년은 18.3%, 2005년은 18.7%, 2006년은 19.2%, 2007년은 20.2%였다.



그 결과 황혼이혼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은퇴 남편 증후군(RHS:Retired Husband Syndrome)이 있다. 이는 주부들이 실직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육체적 이상을 겪으며 속병을 앓는 주부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이 심해지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맞추어 이혼자 전용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일본의 한 은행은 이혼할 때 필요한 위자료와 소송비용, 자산분할비용등으로 사용하는 '이혼전용 론(Loan)'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상품이다. 일본에서 말하는 황혼이혼은 1990년대 유행하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결혼 기간이 20~25년 이상인 50대 이상의 부부가 남편의 정년퇴직등을 맞아 갑자기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급증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도 예측가능한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과거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가족관계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고 대신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평소 지속적으로 가족간의 평등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함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3.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노인은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노인층의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노년층에 비해 현재의 노년층은 노년기를 인생의 종말기가 아닌 자기실현의 기회로 보고, 여가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고, 계획적인 노후 설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선조들의 생활을 따라할 수 없기에 새로운 노인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노인층의 생활방식 변화>

구분	과거	현재
생활양식	보수, 비관적 인생관	합리적, 미래지향적
노년기의식	인생의 종말기	자기실현의 기회, 제3의 인생
삶의 태도	검약, 소박, 무취미	여유, 즐김, 여러 가지 취미
독립성	자녀 등에 의지	강한 독립심, 배우자 및 사회시스템에 의지
노후설계	자녀세대에 의존	계획적인 노후설계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	나이와 젊음은 별개
여가관	일하는 재미, 여가는 수단	여가 자체의 가치 목적화
자산처분	자녀에게 상속	자기를 위한 처분
여행 행태	친목단체 등 단체여행	여유 있는 부부여행
취미생활	노인끼리의 교류	다양한 취미, 다른 세대와의 교류
생활스타일	순 한국식 선호	타문화 교류적 생활

자료: 아마우치 히사시(1991), 「뉴거대시장, 실버산업」

지금까지 노인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프로그램인 노인교실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 후원단체들의 자원봉사 및 후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노인교육은 결국 노인의 최고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추구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우선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함께 고찰해보아야 한다.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행복, 만족, 안녕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선행연구에 의하면, 박성연(1985)은 가족내 결속, 사회관계, 경제만족도, 건강 등이 노인 생활만족도의 55.4%를 설명해준다고 한다. 박충선(1990)은 건강, 자녀와의 유대관계, 주관적 경제상태, 용돈 만족도, 가사참여도, 자녀 동거형태, 부양형태 지역 변수 등을 노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았다. 유성호·모선희(1997)는 소득, 건강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활동등이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들이라고

보았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이념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평생교육이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노인교육도 평생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아탐구, 자기개발, 자기실현이라는 주체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내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교육은 노인들의 건강, 오락, 취미개발과 같은 여가선용 교육뿐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인교육이 노인들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통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 즉 가난, 질병, 역할상실과 이것들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들을 덜어주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그리고 노인교육은 노인이 자주적으로 학습에 임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노인들의 학습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노인교육은 의식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행해진다. 이러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이나 소일이 아닌 학습의 목적으로 정기적인 일정과 규칙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인수, 1996). 노인교육은 노인의 현실적 욕구충족을 위한 단기적인 사회 복지적 성격이 강해야 하며, 노인 스스로 자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적 결함을 방지,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생애를 통합하고 요약하는 단계에서 삶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용이하게 하고 현재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는 일생 중 가장 긴 시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에 대처하는 태도가 민첩하지 못하고 사고의 신축성도 굳어 있는 시기이므로 현대와 같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은 지각이 혼란되기 쉽다. 따라서 긴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학습훈련이 필요하다. 결국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들에 대하여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터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 맥클러스키(McClusky, 1971)에 의하면 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는 다섯 가지가 있다. 먼저 대처능력 욕구로서, 노인은 자신의 노화에 따라 능력과 지식이 감퇴하여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표현적 욕구로서, 자발적인 신체운동이나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말하는데 활동과 차명 그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에 헌신하려는 욕구로서,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어떤 기관이나 방향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사회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다. 넷째, 영향력 욕구로서, 교육을 통하여 기술훈련, 사회적인지지, 그 활동에 대한 평가등을 제고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친목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정치적, 사회적 압력단체등에 가입하여 많은 영향을 주려고 한다. 다섯째, 초월적 욕구로서, 노년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퇴락을 경험하고 죽음을 실감하면서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다(권이중, 1997:474재인용)

평생교육의 이념에 입각한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 노후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전통사회에서 산업화로 전환하는 오늘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젊은 계층은 서구사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은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기술이나 능력 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전통적 가치관이나 경험만을 갖고 있는 노인은 현대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곤란을 겪게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대사회의 흐름과 현대인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노인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장기화되었으며, 노년을 단지 가족에 의존하는 휴식기뿐만 결코 볼 수 없게 되었다.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각 성숙의 단계에서 자아와 사회적 환경간 갈등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아의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였다. 특히 노년기는 자아통합의 절정기로 적절한 자아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단계에서보다 큰 절망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년기는 통합의 원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김종서(1992)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노인들은 계속적 학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의 변화에 대한 흐름만이라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노인들도 이해하고 사회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지니는 동시에 세대간 지역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 생활양식이 변모하므로 노인들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넷째, 직업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알맞은 작업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다섯째,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 시간이 많아지므로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변화로 지적된 조손가족의 증가, 황혼이혼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교육방법과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교육기관은 이용시설인지 아닌지(생활시설인지)의 여부에 따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즉 주간에 노인관련 건강, 여가, 직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위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24시간 생활 중에 일부 낮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적으로 거리상 복지관과 떨어져 있어서 마을 단위에서 지역노인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노인교육기관은 노인복지시설 구분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가지 하위 부류로 나뉘며, 그 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등이 해당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은 전국에 4만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10명 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비의 영세성, 프로그램의 부재, 전문 인력의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경로당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휴양소와 노인교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주로 노인복지회관이 가장 많은 노인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중 중년기의 노년기 대비교육과 노년기의 노년기가족생활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해 주간 이용 노인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노인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인교육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1) 복지관 노인교육

복지관의 노인교육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노인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노인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관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살펴보았다. 각 기관들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스포츠 센터 운영,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경로당여가문화 보급, 어르신봉사단, 노인일자리, 재가복지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자 취업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실버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업무는 종합상담(복지관 이용상담, 생활상담, 건강상담등), 사회교육사업, 지역복지사업, 기능회복사업, 자원봉사사업등이다. 여기에 취업알선센터 운영, 경로당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치매상담센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기관, 고령자인재은행사업등이 추가된다. 이중 사회교육사업은 교양교육, 건강교육, 예능교육, 취미교실, 정보교실, 특별교실 등 기타의 교육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평생교육 및 결속력을 도모하고 우울증, 고독감해소 및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실시된다. 교양교육은 주로 건강강좌, 한글 및 작문교육, 일어교육, 영어교육, 예절교육이 있으며, 동화구연이나 연극지도등이 있었다. 건강교육은 탁구교실, 체조교실, 요가교실, 에어로빅등이 해당되며, 예능교육은 서예교실, 댄스교실, 노래교실, 무용교실, 스포츠댄스, 사물놀이패, 가요댄스 등이, 취미교실은 바둑 장기교실, 국화연구반, 정보교실은 컴퓨터교육, 인터넷정보 검색교육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음은 실제 운영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사례이다.

A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교육(중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사례

종류	구분	수	목 표	세부 프로그램
1	취미여가	12	다양한 취미교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형성	노래, 민요, 풍물, 손뜨개, 하모니카, 서예, 수묵화, 한글서예, 바둑/장기, 은빛합창교실, 난타, 오카리나
2	건강증진	9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레크 댄스, 단전호흡, 댄스스포츠-기초·중급·고급, 탁구, 한국무용, 요가, 게이트볼, 라인댄스
3	교양교육	10	자기개발 및 구성원 간 친목도모	영어기초, 기초회화, 일어 초급, 중급, 한글-1반, 2반, 한자 초급, 명심보감, 중국어, 교양강좌
4	정보화	4	정보화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의 기회제공 및 세대 격차해소	컴퓨터기초, 한글/엑셀, 인터넷-1반, 2반
5	동아리활동	5	이용노인의 자발적인 활동 통해 노후안정 도모	댄스스포츠, 연극반,
6	체험행사	9	노인간 친목도모 및 생활 활력도모	문화체험, 건기대회, 발표회/작품전시회, 대회/행사참가, 초청공연, 어버이날 행사, 명절맞이행사, 신바람 가요제, 지역문화행사

이러한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정보센터, 노인문화센터가 있다. 이 기관들은 전국에 211개가 있으며, 서울에 37개소, 인천 12개소, 부산 10개소, 대구 4개소, 광주 6개소, 울산 6개소, 대전 6개소, 충청북도 16개소, 충청남도 10개소, 강원도 5개소, 제주도 4개소 등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wcs.or.kr>)

결론적으로 복지관의 노인대상 교육은 일자리와 관련된 노인 취업 교육이 가장 강세를 보이며, 추가로 노인을 돌보기 위한 노인 돌보미 양성 교육, 그리고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여가지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복지관의 노인교육은 만 65세 이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과거 소일거리가 없어진 노인들에게 새롭게 자기개발, 취미, 건강 또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습득등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1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2010년 기준) 보편적인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를 강조하며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서의 비중은 작다. 그러나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년기 준비교육과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매뉴얼이 개발된 이후 매뉴얼 중심의 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매년 노년기 교육을 실시하는 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노년기 교육 프로그램명과 교육을 실시한 센터수는 다음과 같다.

노인대상 관련 프로그램은 복지관에 비해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사업초기의 특성상 다양하지는 못하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년기 교육내용을 알기 위해 www.familynet.or.kr에서 제공되는 매뉴얼에 있는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이 중 대표적인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중년기 가족생활 프로그램,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하는 법과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브라보, 마이라이프를 들 수 있다.

가. 중년기가족생활프로그램 :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하는 법

중년기는 생산과 성취에 의한 인생의 절정기인 동시에 침체의 혼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중년기 위기감에 대처하고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중년기 가족생활 프로그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점, 그리고 한국인의 평균수명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노년기 맞이를 불안해하는 예비노인들을 대상을 황혼이혼과 노인자살의 증가, 빈곤노인층의 확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년생활에 대한 심리적, 가족관계적, 경제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중년기에 속한 예비 노인층이 노년기에 진입하여 변화된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인식하면서 활력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노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년기가족생활프로그램 :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하는 법>

매뉴얼	주제	내용
중년기 가족생활프로그램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하는 법 (2007)	성인자녀와의 관계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며 갈등사항 점검함 • 상호 정서적 분화를 위한 노력과 대안을 알아보고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알아봄
	노부모와의 건강한 가족생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후기의 부모와의 건강한 가족생활시간 운영 • 노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파악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여가활동 계획의 중요성 인식 • 의존과 부양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현실적 문제 상황점검함

나. 노년기가족생활교육 ‘브라보! 마이라이프’

이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주제(의사소통, 죽음준비, 건강관리, 소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의 노화과정과 생활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 또한 가정을 경영하는 주체자로서 자립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중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사소통 영역은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 효율적인 의사소통방식의 습득, 가족관계의 이해, 성공적 노년의 의미 이해로 가족관계를 다루기 위한 내용들이다. 죽음준비 영역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과거를 통한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존엄한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영역이다. 건강생활은 영양과 운동에 대한 원리와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생활은 노인소비자 정보의 습득과 올바른 구매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년기 생활프로그램은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관계내용(의사소통)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년기 소비생활(노인 대상 사기 문제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인교육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조손가족, 노인부부생활 시간의 증대, 노인단독가구의 증대등과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나 점차 노년기 교육을 실시하는 센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시현황(2005~2010년 상반기)>

연도 (센터수)	2005(15)		2006(48)		2007(64)		2008(81)		2009(96)		2010 상반기(129)			
	사업수	이용 자수	사업수	이용 자수	사업수	이용 자수	사업수	이용 자수	사업수 ⁷⁾	이용 자수	사업수 ⁸⁾	이용 자수		
아동/ 청소년기	17	4,166	40	13,612	123	48,297	98	40,014	1,043	14,451	-	14,486		
예비부부/ 신혼기	13	1,363	41	2,699	59	3,864	68	6,039					13,537	8,455
부부	9	1,089	32	3,794	62	4,686	59	5,838					5,868	913
부모	61	5,385	155	17,762	221	46,571	216	30,857					32,103	5,226
(찾아가는) 아버지 ⁹⁾			52	5,277	117	11,590	233	28,075					22,436	15,629
중/노년기	13	1,444	27	8,681	69	26,131	73	10,156					30,537	17,980
전체가족	12	1,595	45	6,592	115	11,512	50	14,240					7,047	7,849
기타 교육 ¹⁰⁾	41	3,861	63	20,434	212	7,928	74	9,238					168,042	64,983
총 ¹¹⁾	166	18,903	455	78,851	978	160,579	871	144,457	1,043	294,021	-	135,521		

출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자료

5. 맺는말 :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 교육프로그램의 과제

이제까지 노인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노년기 지원을 위한 정책은 교육보다는 노인가족의 건강 및 취업지원이 우선시 되었다. 즉 치매노인지원, 독거노인 지원, 기초노령연금과 주택연금제도를 통한 노인가족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확대('11년 100개소 → '15년 140천개소), 노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었다. 그러나 일부 복지관 사업을 통해 노년기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교육이 제공되어 왔으나 문화, 여가, 건강 또는 교양과목(한국어, 영어, 일어등)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이제 노인대상 교육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으며, 3년전부터 중년기 가족 대상 노후준비교육과 노년기 대상 노년기 관련 교육 등 가족관계 향상 또는 노년기 삶의 질

7) 2009년부터 시스템으로 사업을 보고함에 따라 전체 교육의 사업수는 파악되나 세부 프로그램의 사업수는 파악하기 어려움. 단 세부프로그램의 실시회수는 파악가능함

8) 2010년의 경우 시스템 상황상 현재 '진행중'으로 처리되므로 2010년 연말에 총 연사업수가 파악됨

9) 2008년과 2009년은 직장내 가족친화문화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교육영역에 아버지교육, 가족친화문화영역에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으로 분류하여 이용자 현황을 파악함

10) 기타 교육에는 전문집단 역량강화교육(예: 아이돌보미양성교육,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 개인의 자아성장 및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예: 리더십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

11) 2008년과 2009년 총계의 경우, 가족교육 영역의 아버지교육과 가족친화문화영역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의 사업수와 이용자수를 합산하여 기재함

향상을 위한 가족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년기 삶은 당면과제인 건강관리, 고독감 해소, 기초생활보장 등을 해결 하면서 발달적 여가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배우면서 사교를 즐기도록 하는 여가프로그램 위주로 제공(문화일보 2010. 4. 22)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까지 노인교육을 포괄하면서 노인교육의 개념을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건강상태도 양호해졌으며, 노인 또한 연령대가 다양함을 고려해서 노인교육 또한 대상과 욕구를 세분화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노인교육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소 참여하는 노인교육 시설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순이었으며, 이에 비해 여성은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교육에 참가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30.9%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20.0%),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가 12.0%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여성은 건강을 위해서(33.1%)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동기였으며,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20.0%),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서(12.0%),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8.9%)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에 따른 순서이기도 하다.

노인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효과에 대해서는 고독감해소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30.0%로 조사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가족생활교육영역에서는 대화방법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시민생활교육 중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변화의 적응에 관한 교육도 높은 요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안전을 위한 봉사와 환경을 위한 봉사에 대한 요구가 다른 봉사활동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사회변화를 토대로 할 때, 우선,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노인들도 이해하고 사회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지니는 동시에 세대간 지역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해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변화된 기술이나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등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관계교육의 강화이다. 특히 황혼이혼 증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빈곤한 노인을 증가시킴으로 노인부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노년기 이전부터 부부관계는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중년기 교육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교육이나 기업으로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에서 자녀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역할이 노년기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연구를 축적해서 노년기 외롭지 않고 자녀와 긴밀한 관계 형성이 미리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조손가족 증가와 함께 조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과 자이존증감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이 나이에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자녀들의 결혼생활 실패의 증거로 남들에게 비취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자이존증감은 손자녀들에게도 적극적인 조부모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또한 빠른 사회의 변화는 과거 부모역할과 다른 부모역할을 요구하므로 조부모들이 새로운 부모역할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중년기 이후부터는 은퇴한 이후 노년기 삶은 **사회적 역할상실과 고독에 맞닥뜨리게** 되며 특히 역할상실의 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심각한 노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년기의 은퇴는 보통 직업 상실로 인한 급격한 수입 감소, 신체적 능력 저하 및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므로 변화된 생활에 대한 적응을 위해 노년기 시간관리와 여가활용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10~20년 후의 한국사회는 가치지향이나 생활양식 측면에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즐거움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눈앞에 둔 세대는 경제적인 여유를 지닌채 갑자기 늘어나는 시간량에 당황하고 있다. 가장 여가시간이 길고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여건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사회공헌적인 여가생활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적으로 삶의 보람과 자아존중감을 키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자원의 발굴이 될 수 있다.

수명이 연장된 현재 노인들은 점차 짧아진 노동수명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일생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20세에 일하기 시작하여 60세까지 40년 동안 연간 2,000시간 노동한 시간에 통근시간이나 잔업시간을 더해 일생동안 약 9만 시간 일했던 이들은, 정년 퇴직 후 **1년 평균 4,500시간(1일 평균 12시간으로 가정) 가까이 자유 시간을 갖게 되어 평균 수명 80세까지 약 9만 시간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0년간의 총 노동 시간과 20년간의 노후 여가시간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노후 여가시간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은 ‘일하지 않는 자유시간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며 지낼까?’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경제활동시기동안 축적해 놓은 경제적 자산도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에 지출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수준도 아니다. 평생동안 소비보다는 저축과 생산중심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살아와서, 이제 자유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활동에 지출을 하기도 쉽지 않다. 이들에게 남은 문제는 ‘많은 시간동안 많은 지출을 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낼 것인가?’에 있다(윤소영, 2006).

여섯째 자원봉사교육이다. 이제 노년기 자원봉사는 노년기 여가생활의 한 영역을 넘어 노년기 생활의 주요 한 파트가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대인관계를 확대하며, 노년기 생활시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회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들로 대표적인 것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친구간의 교체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남는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친구 간 교체를 통한 우정형성은 삶에 일정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며 상호 존중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들은 놀이나 게임 등의 여가활동을 통해 집단 구성원과 상호간에 공헌하며 평등한 교환이 가능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일곱째, 가장 실질적인 가정생활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져야 하는 요리, 청소, 설거지, 빨래등 가정생활기술은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노인이 갖고 있어야 할 기술이다. 또한 이러한 가사노동과 관련된 것을 젊은 세대에 비해 어떻게 단순화 시키고, 기술적으로 해내는지가 노인들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남성들에게 더욱 집중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oone, E. J. (1985). *Developing Programs in Adult Education*.
- Boyle, P. G. (1981). *Planning Better Programs*, McGraw-Hill Book Company.
- Caffarella, R. S. (1994). *Planning programs for Adult Learners*,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 Croom Helm.
- Jarvis, P.(1983).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London :
- Knowles, M. (1978). *Education for Aging : The Scope of the Field and Perspectives for the future*.
S. M. Grabowski & D. Mason(eds). *Learning for Aging*, Washington D. C. : Adult Education
of the U.S.A.
- Kowalski, T. J. (1988). *The organization and planning of adult education*. New York: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강기정, 박경애, 정민자, 조성은, 오청미, 이남주, 이은정(2008).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권이중(1997), *사회교육개론*, 서울:교육과학사
- 김중서(1982), *노인과 학습*, 대한노인회(편)
- 나향진(2004). *노인교육론*. 교육과학사.
- 문화일보 2010. 4. 22
- 박성연(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1호
-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연구*, 여성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여성개발원
- 야마우치 히사시(1991), 「*뉴거대시장, 실버산업*」
- 오인경(2005). *교육프로그램 개발방법론*. 학지사.
- 유성호 · 모선희(1997), *노후생활만족에 관련된 변인, 남녀차이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제2권 1호
- 윤소영(2006), *노인여가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권 4호.
- 이인수(1996), *현대노인복지론*, 서울:양서원
- 이혜주 외(2002).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화정 · 양병찬 · 변중임(2003).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실제*. 학지사.
- 전혜정, 김정숙, 권미애(2007). *중년기 가족생활프로그램-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하는 법- 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
- 통계청(2008), *사회조사보고서*.
- 한은주, 유경, 이윤정(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브라보, 마이 라이프’*,
www.familynet.or.kr
<http://www.kaswcs.or.kr>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

이 윤 정(호서대 노인복지학 교수)

최근 자료인 2008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3%를 넘어(통계청, 2008)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향후 30년 후에는 중위연령이 남녀 평균 53.4세로 예측되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 가속현상은 발표문인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사회적 현상이 야기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도된 기획으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노년기 가족의 문제예방과 건강성 증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문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 가족을 위한 건강가정사업이 전국의 전달체계를 통해 확대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타기관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혹은 분석을 기반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고 실천의 논리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연구논문으로써의 전개방식과 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목적에 따른 논리적 전개방식의 검토와 수행이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은 ‘노인의 생애주기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조명을 위한 것’ 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논할 수 있는 노년기 생활과업에 대한 제시와 함께 노인 당사자의 욕구파악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나아가 노년기 가족생활교육의 방향이 가능될 수 있어야 했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대상으로서 노년기(노인) 가족의 실제적인 문제를 개인적 측면, 가족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를 제시하거나 혹은 사업지원의 우선순위가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만약 그러한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논리적 근거가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히 지지될 수 있으며, 실천의 목적이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발표문은 노인의 욕구파악 및 분석자료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정리작업이 보완되어야 하며,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년기 가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모색에 관점을 이분화 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을 파악해보면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여러 일반적 현상과 이에 요구되는 교육주제에 대한 언급이 일부분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노인가족이 처하는 어려움에 중점을 두어 황혼이혼, 빈곤율의 증가, 조손가족, 노인의 자원봉사를 언급하는 등 당면한 문제를 지원해야 하는 측면을 다소 산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모색임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함은 어떠한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하고자 한다. 즉, 한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근거한 가족문제 예방과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제시될 수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조손가족 등 위기에 처한 노인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주제와 방향 제시 혹은 지역사회 주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기획을 제안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각 가족생활주기에 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교육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건강가정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차원은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년기 가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모색의 이분화는 연구의 의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노인"이라는 집단은 생각보다 이질적인 집단이다. 노인이 처한 환경은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그들의 자라온 환경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생활양식을 만들어내므로 욕구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고령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의 속도 이상으로 다차원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 발표문이 그 대비의 일환으로 노년기 가족생활교육의 일반론을 검증하고, 나아가 위기적 측면의 문제예방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년기 가족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되기를 기대한다.